

여호수아 3장

요단 강을 건너다

1-4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딴을 떠나 요단 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는 900미터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
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
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7-8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

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1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 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고일 것입니다."

14-16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 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요단 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흘러내리던 물

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저만치 아라바 바다(소금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17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 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밟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 강을 건넜다.

시편 126편 순례자의 노래

1-3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못 민족들의 화젯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4-6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 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 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시편 127편 솔로몬이 지은 순례자의 노래

1-2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 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 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쉽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3-5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오, 화살통에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원수들은 너희 상대가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초전 박살나리라.

시편 128편

순례자의 노래

1-2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
된가! 쪽 뺨은 그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네 몫이다.
복을 한껏 누리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3-4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

네 아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요,

네 가정은 우거진 포도밭 같을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가지 새싹처럼 푸르고 싱싱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오,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여!

5-6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리라, 평생토록.

손자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사야 63장 하나님의 구원의 날

1 파수꾼이 힘껏 외친다.

"거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처럼 빛나는 차림을 하고
원기왕성하게 전진해 오시는 당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 옳은 말을 하는 나, 구원할 힘을 가진
나다!"

2 "그런데 의복이 왜 그렇게 붉은가요?"

포도주 틀을 밟고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옷
이 붉게 물들었나요?"

3-6 "나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나를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노하여 포도를 밟았다.

진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게 튀었다.

내 옷은 피로 완전히 젖었다.

내가 보복하기로 작정한 때, 속량을 행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누구 하나 자원하여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일을 했다. 나의 노를 힘입어 했다. 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고, 진노하며 그들을 밟아 뭉갰다. 그들의 피로 땅을 흠뻑 적셨다."

7-9 내가 열거해 보겠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업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찬양받으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크신 인애, 그 넉넉한 긍휼과 넘치는 사랑을.

그분께서 "정녕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당신도 친히 함께 고난을 겪으셨다.

누구를 대신 보내 그들을 돕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다.

당신의 사랑과 동정에 이끌려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건지시고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안고 가 주셨다.

10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 등을 돌렸다.

그분의 성령을 슬프시게 했다.

그래서 그분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들의 적이 되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11-14 그러자 그들은 옛 시절을 떠올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때를.

"당신의 양 떼의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 속에 당신의 성령을 두신 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의 오른팔에 당신의 팔을 올려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신 분, 그를 대대로 유명하게 만드셨으며, 그들을 이끌어 진흙 심연을, 굳은 평지를 디디는 말들처럼 통과하게 하신 그분은

누구인가? 초장으로 인도되는 가축 떼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14-19 주께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하고 장대한 집 창문 밖으로 내려다봐 주십시오!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높은 권능의 역사들,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진심어린 동정과 자비하심,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물러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살아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름 높으신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냉담하고 완고한 자들로 만드셔서, 더 이상 주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곳을 잠시 차지했으나, 이제 그곳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례자 요한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2-3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 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4-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

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7-10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에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어 네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11-14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 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15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16-19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 보아야 안다.”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20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그곳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 버렸던 것이다.

21-24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 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잔뜩 점잔을 뺏다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

있을 것이다. 심판 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25-26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27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 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독특한 일이

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
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28-30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
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
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
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
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가
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